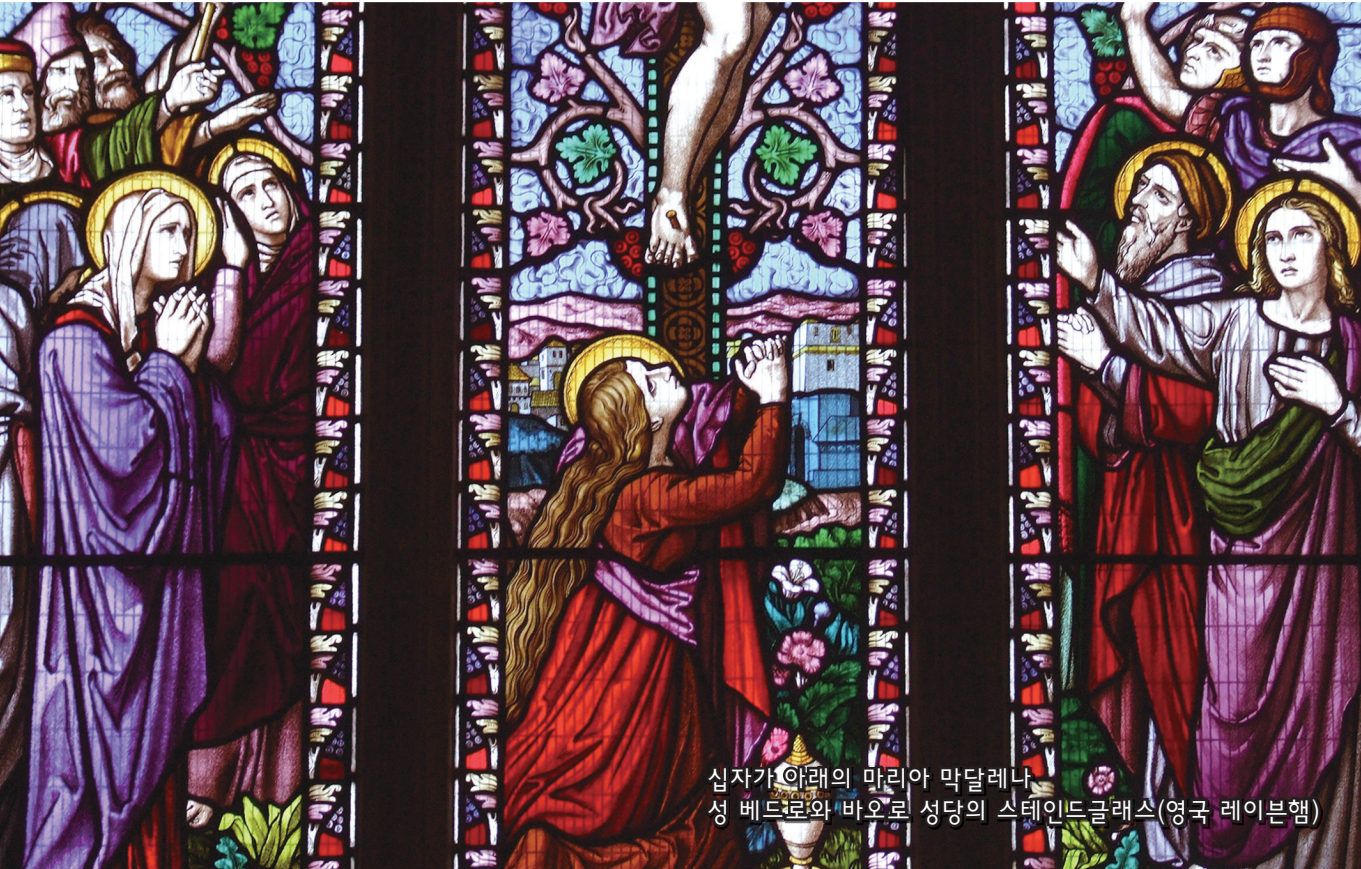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십자가 아래의 마리아 막달레나
성 베드로와 바오로 성당의 스테인드글래스(영국 레이븐햄)

† 오늘의 전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루카 7,36-8,3 참조)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죄 많은 여자는 분명 좋지 못한 짓을 많이 저질렀겠지만, 또한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깨닫고 있었고 예수님께 가면 꼭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언제나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를 믿습니까?

제1독서 2사무 12,7ㄱ-10,13

제2독서 갈라 2,16,19-21

복음 루카 7,36-8,3

입당송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화답송 ◎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용서

문병찬 대건 안드레아 신부 | 동인본당 주임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죄로 죽어가던 여인을 살려 주시고 용서로써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낙인찍혀 평생을 소위 왕따를 당하며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은 주님이시라면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마음의 아픈 상처를 낫게 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으며 용기를 내어 주님을 찾아 갑니다. 마침내 주님을 뵈게 된 그녀는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신 뒤 자기의 머리 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다음 향유를 부어 바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받았다고까지 하시면서 돌려보내십니다. 그녀의 죄를 보시지 않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 사랑의 은총을 아낌없이 베푸신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람에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용서이며, 회개의 길로 돌아서는 순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

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 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먼저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가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 나왔을 때 이번에는 둘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구해 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 준 후에는 둘에다 적었지?” 그러자 뺨을 맞았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는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 버릴 수 있게 말이야.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세례성사로 신앙인이 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묻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우리 역시 자신의 잣대에 맞춰 이웃을 판단하고 처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자비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



신앙의 해 교리 퀴즈⑨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 산 이와 죽은 이들을 모두 당신 앞에 모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또한 죽고 나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예전 용어로 '사심판'이라 불렀던 이것을 가톨릭교회교리서에서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신앙의 해 특집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가르침⑦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문화홍보실

사목현장이 인간의 존엄과 본성의 뿌리가 삼위일체 하느님께 있다고 천명한 것을 지난 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느님께 사랑받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에 났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며, 더불어 살면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죄를 제외한 사람됨의 모든 면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임을 밝혀 줍니다. 사람의 지식과 연구, 노동과 문화는 무의미한 것이거나 신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빛을 받아 더욱 뜻 깊은 것으로 변모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활동에 의미가 있는가?

사목현장은 인간의 공동체적 본성, 즉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 활동’, ‘인간 노력’의 의미에 대해 고찰합니다(33항). 사목현장은 인간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가 하느님 계획에 부합한다고 가르치며, 이성과 신앙이 서로 어긋나지 않음을 천명합니다. “인류의 승리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징표이며 하느님의 해아릴 수 없는 계획의 결실”이기에 “인간의 능력이 커질수록 ... 인간의 책임도 더욱 확대”된다고 말

합니다(34항).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인간 완성’을 향한 도구여야 하며, 세속 지식과 사물의 발전도 하느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영원한 목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능을 주신 하느님께서 계명과 양심도 주셨다

공의회는 ‘현세 사물의 자율성’이란 말을 통해 신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학 지식이나 문화와 같은 것들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율성’은 사람이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자력을 발견한 인간의 연구는 가치 있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살인하는 데 쓴다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상에서 벌이는 온갖 활동이 하느님 앞에 올바른 것이 되려면 은총의 도우심과 죄의 유혹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37항). 이 노력을 위한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인간완성과 세계개혁의 근본 법칙”입니다(38항). **▶**



“모든 사람은 죽자마자 그 불멸의 영혼 안에서 산 이와 죽은 이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으로 영원한 값을 받는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051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수성심 성월에 이재현 신부님을 생각합니다

최홍길 레오 신부 | 수성본당 주임

매년 유월 예수성심 성월이 오면 예수성심 공경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이재현 요셉 신부님을 떠올리게 된다. 소신학교 시절 중고등부 과정 6년 동안 세분의 교장 신부님을 뒤흔는데 직접 뵈지도 못하고 저서로만 만났던 선대의 요셉 신부님이 생각나는 것은 웬일인가. 그만큼 요셉 신부님의 사제적 삶과 정신이 신학생 시절과 사제생활 동안 한결같이 소중하고 은혜로웠으며 크고 장한 울림으로 가슴 깊은 데서부터 용솟음쳐 오기 때문이 아닐까.

이재현 요셉 신부님은 1909년 생으로 1936년에 라리보 주교로부터 사제로 서품되시어 신학교 교수로서 후진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6.25 동란 초, 피난을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다가 1950년 9월 17일 백남창 신부, 정진구 신부와 함께 피랍되어 행방불명되었다. 김향식이라는 분은 신부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공산치하 3개월은 끊임 없는 공포와 긴장의 나날이었고,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미군의 공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서울 시내에는 계속되는 폭격으로 초토화되고 그 잔해만이 널려 있는 황폐한 폐허가 되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재현 신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미사를 봉헌하고 학생들과 신자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신학교 주변에도 폭탄이 떨어져 별관 오른쪽 교실이 파손되었는데, 그 때가 바로 미사 전례가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었다. 폭탄 터지는 소리와 진동이 얼마나 요란했는지 참례하고 있던 학생과 신자들은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제대 정면에 있는 창문이 깨져 날아가는 폭음 속에서도 이재현 신부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거양성체를 하고 미사를 끝까지 집전하는 모습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성인의 모습이었다.” (『이재현 신부와 동료사제 납치현장을 회상하며』, 2005. 08. 12.)

신부님은 “사제생활은 극기의 생활, 보속의 생활, 희생의 생활, 십자가의 생활, 순교의 생활”이라고 천명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다. 제자들에게는 “항상 기도하고 쉼 사이 없이 일하는 사제가 되라.”고 강조하셨다. 참으로 신부님의 생애는 그 전부가 온전히 예수성심께 의탁하고 예수성심의 원의를 따라 사는 삶이었다. 『예수성심성월』, 『성시간』, 『연중묵상』, 『매일묵상』을 비롯한 10여권의 저작을 남기셨는데, 한국교회로서는 신부님을 빼놓고 예수성심 공경 신심과 성시간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 6월은 국가적으로 호국보훈의 달이고 6.25 발발 예순세 돌이 된다. 더불어 한국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과 기도주간을 맞이하는 예수성심 성월을 살고 있다. 예수성심의 열렬한 사랑 가운데 신부님의 천상전구를 빌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구원을 열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의사와 아버지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요하는 긴급전화를 받고 병원에 급히 들어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병원 복도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소년의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의사를 보자마자 소년의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까?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나요? 의사로서 어떤 책임 의식도 없습니까?”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흥분해 있는 소년의 아버지를 달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 받자마자 달려 왔습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아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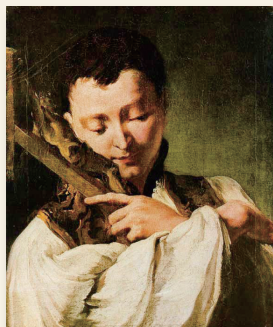
“진정하라고? 만약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 있다면 진정할 수 있겠어?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소년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 하느님의 가호가 있을 겁니다.” “자기 아들 아니라 고 편안히 말하는 구만.”

몇 시간동안의 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 보세요”라며 소년의 아버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의사는 황급히 달려 나갔습니다. “저 의사는 왜 저렇게 거만한 거요? 내 아들의 상태를 말해주기 위해 몇 분도 아깝다는 건가?” 소년의 아버지는 그 때 막 수술실에서 나온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갑작스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 중에 수술 전화를 받고 급히 들어오신 겁니다.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필름**



금주의 성인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6월 21일)

이탈리아의 부유한 집안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성소에 뜻을 두어 정결을 허원하고 절제와 금욕생활을 하신 알로이시오 곤자가 성인께서는 군인이 되길 원했던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상속권을 양보하고 예수회에 입회하여 수사가 되셨다. 경건하고 겸손한 생활로 모범이 되셨던 성인께서는 1591년 이탈리아에 흑사병이 퍼지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시다가 전염되어 23살의 젊은 나이에 선종하셨다. 성인께서는 베네딕토 13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시고 청소년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셨다.



■ 교구장 대주교님 미주사제연수 참석



미주지역을 사목방문 중이신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6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캐나다 켈거리에서 열린 미주지역 교구 사제연수에 참석하시어 연수에 함께한 사제들을 격려하시고 사목현황을 보고 받으셨다.

■ 2013년 상반기 말씀잔치



교구 성서사도직(담당: 박상용 요한 신부)에서 주최하는 2013년 상반기 말씀잔치가 6월 8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대강당에서 성서모임 8개 팀 2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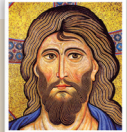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매월 참여해주시는 교우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영성사진 콘테스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사진 콘테스트 참여 방법

- 공모주제 :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 참가자격 : 교구 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가톨릭 신자
- 공모기간 : 12. 11. 25.(일) ~ 13. 10. 31.(목)
- 출품방법 : 공식 응모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http://contest.daegu.jubo.or.kr>)



2013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교 교리퀴즈 안내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6월 2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⑦ 정답은 <속량>입니다.

당첨자 : 황보현(안젤로, 서재), 이안희(세실리아, 압량), 박애란(그레셴시아, 정평),

이후금(세실리아, 죽도), 차흥주(프란치스코, 신암)

사랑이란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6월 17일(월) 10:00 경산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6월 17일(월) 11:00 수성성당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6월 17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미사	6월 18일(화)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17일(월) 11:00 죽도성당	노동자를 위한 미사	6월 21일(금) 19:30 가톨릭근로자회관 2층 소강당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6.22(토) 17:00
장소: 화곡동 예수회 신학원
내용: 예수회 공동체 탐방
문의: (010)8589-9880
vocsj@hanmail.net

섭리 기도 모임

일시: 6.23(일) 14:00, 성당성당 수녀원
대상: 미혼 여성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8915-2104

청년 주말 피정

기간: 6.29(토) 15:00~30(일) 16:00
장소: 예수수도회 보은 피정의 집
(대전집결 함께 이동 가능)
대상: 젊은 청년, 피정비: 3만 원
문의: (010)5420-0268

18차 효소단식 침묵, 복음서통독 피정

기간: 7.8(월)~16(화) 14:00, 8박 9일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1인 70만 원
문의: (044)863-5690~2
(010)8848-5690

부산5차 성경통독 효소단식 피정

기간: 7.12(금)~15(월), 3박 4일
장소: 부산 광안리 성분도 은혜의 집
회비: 32만 원, 주관: 가톨릭교수회
문의: 피정의집, (051)753-5744
(010)9363-7784 / (010)3806-7784

교육 | 모집

가르멜수도회 특별 영성강좌

일시: 6.20(목) 10:00~16:00
장소: 대명성당, 참가비: 무료
주제: 하느님과의 우정으로서의 기도
강사: 막시밀리아노 신부(스페인 가르멜 소속)
문의: (010)4917-2625(도시락 지참)

성모기사회 젊은이 넷 멤버 모임미사

일시: 6.23(일) 14:00
장소: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문의: 박상규 신부, (010)5380-8615

감성과 음악(힐링 프로)

기간: 7.6(토)~7(일) / 8.24(토)~25(일)
대상: 미혼여성 누구나
신청: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9056-9005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교회음악(성가교실지휘반주), 음악 1:레슨
교양·문화강좌(공예·뷰티·요리·사진·건강)
전문자격 / 취업 과정 등
모집: 6.28(금)까지, 개강: 7.1(월)부터
장소: 감삼 및 동구, 문의: 660-5556~7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8.23(금)~9.2(월), 10박 11일
장소: 이탈리아·그리스·터키 3개국
내측 508만 원, 오션뷰 538만 원
발코니 568만원 - 대한항공 이용
문의: 428-5004, www.cttour.org

예수마음배움터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7.19(금) 17:30~21(일)
4박 5일: 7.15(월) 14:00~19(금)
8박 9일: 6.24(월) 14:00~7.2(화)
에니어그램: 7.13(토) 15:30~14(일)
문의: (031)946-2337~8

겨자씨성서 한길 모임 수강생 모집

기간: 8.30~11.29(매주 금)
10:00~12:00
대상: 65세 이상 교구 내 모든 신자
문의: 625-4627 / (010)6520-4627

인공신장실 야간투석

인공신장실
야간투석

안지환 방면

서부영남대
서부정류장

영남의과대학 외래교수 원장 김영진 (안드레아)
☎ 053)656-7533

유방 갑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약기(바오로) 011-514-3855

SM **수맥 흠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허리 아프고 무릎 아를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승현역 2번 출구

나가사키성지순례

제4차 9월25일~28일(3박4일)
순례경비 59만 5천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전문의 김정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인공신장실

신장 전문 수역내과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건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행사 | 모임

교구 가톨릭교직자 대회

대구지역: 6.29(토) 10:00, 대신학원
4대리구: 7.6(토) 10:00, 성동성당
5대리구: 7.13(토) 10:00, 구미대학
대상: 교구 내 유치원, 초·중등 교직자
문의: 교구 학교복음화담당, 250-3037

한국SOS어린이마을 50주년 감사미사

일시: 6.22(토) 11:00
장소: 한국 SOS어린이 마을
문의: 983-3154
<http://www.koreasos.or.kr>

전레꽃꽃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6.17(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카페: 대구대교구 전레꽃연구회

교육 | 모임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 학교 개설 (주간)

기간: 6.24(월)~28(금) 13:3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수강료: 1인 3만 원(교재비 포함)
신청마감: 6.18(화) 17:00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제9기 교구 청년 리더십

기간: 6.29~30 / 7.6~7(1박 2일 / 2회)
장소: 시각장애인 선교회 피정의 집

대상: 교구 내 청년
(성직자, 수도자, 예비자 가능)
마감: 선착순 40명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6.22(토) 10:00,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교회 안의 평신도, 사제,
수도자의 역할 / 5천 원
강사: 최송실(마리아) 수녀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11차: 7.26(금)~28(일), 한티 피정의 집
문의: 대구ME, 983-0521
교원들을 위한 에듀힐링 신청 환영

가톨릭근로자회관 봉사자 모집

대상: 다솜 공부방 선생님(교육계 종사자)
스카웃 봉사자(신체 건강한 남, 녀)
문의: 253-1313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교육생 모집

생활일본어, 천연비누&천연화장품,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우쿨렐레,
통기타, 대금, 리본공예, 퀼트, POP,
초크아트, 토크엔팅(문의: 476-6211)

모래놀이치료사·상담사 1급 자격교육

일시: 6.29(토) 10:00~19:30

장소: 계명문화대 유아교육관 302호
내용: 모래놀이치료, 즐거운 모래놀이 등
강사: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김보애 박사
문의: 상지유치원, (010)6231-6062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기간: 7.20(토) 출발, 4주
대상: 초4~중3(선착순: 50명)
문의: 656-6655(ARS 4)
대학생 해외봉사·어학연수 모집 중
문의: 593-1273

채용 | 안내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박인덕(베드로 다미아노)

학교법인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기능직) 채용

원서접수: 6.18(화)~19(수)
제출처: 학교법인 선목학원 법인사무국
자세한 사항은 학교법인 선목학원 홈페이지
<http://www.dgsunmok.or.kr> 참조

교구청 경비(영선)직원 모집

자격: 만4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신자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제출마감: 6.21(금)
문의: 관리과, 250-3030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부모님께 받은 사랑 이제 돌려드리세요!

**백내장수술은
사랑의시작입니다.**

의학박사
현, 연세대의대교수 원장 박승원(소시오)
대구연세안과
☎ 053.626-8881-5

16년 경력, 보증보험가입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054)458-3223 수산나 010-6571-3385
리스토리컬은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자부심

업선된 최상급 식재료와 올리브유, 식물성 기름만을 고집합니다.
몰락높은 비즈니스 모임, 경조높은 최고의 상견례 명소

자금상
중국요리
대표: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요한)

예약 (053)767-6700 대구 수성구 황금동 LG전원 빌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귀금속 최고가 매입

순금, 백금, 18K, 14K
다이아몬드, 은수저, 치아금

황금점: 황금동 데레사소비테르 내
북한점: 북한동 농협 하나로마트 내

(주)한국금은거래소 ☎ 763-8838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점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 판 제(루카)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